

이웃에 ‘찍힌’ 예술인들

평범한 가정주부, 아이 엄마, 병원 의사, 동네 아저씨로...

사진 속 표정과 손에서는 그들의 예술혼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김소녀 작 '가족공예가 윤춘영씨'



김미정 작 '얼쑤 대표 김양균'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술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역 예술인 30명이 카메라 앵글에 담겼다. 그들의 모습은 오는 10일까지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인의 사진 이야기’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착한 이들은 전문 사진작가는 아니다. 개인택시 기사, 어린이 숲 해설가, 간호사, 의사, 여행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평범한 ‘이웃’이다. 오랜 시간 앵글에 담긴 예술가와 인연을 맺어온 이도 있고, 이번 전시를 기회로 처음 예술가들을 만난 이도 있다.

지난 1998년 결성된 빛누리사진문화 연구회 회원인 이들은 그들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예향의 예술인들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 이전의 모습을 잡아내는 데 집중했다.

전시 기획을 맡은 박재완(60·여행 사진 작가) 씨는 알고 지내는 예술가들에게서 종종 “내 지인

‘문화예술인의 사진 이야기’전, 10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들 말고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가, 알고는 있지만 작품 너머 모습을 모르는 작가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회원들의 사진에 담긴 예술인들은 가정주부이자 아이 엄마, 의사, 동네 선술집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 모습들로 다가온다. 사진 속 표정과 손에서는 그들의 예술혼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신장용(51·기독교병원 임상병리의)씨는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오면서 기록해온 예술인들의 평범한 일상에 주목했다. 우재길미술관 우재길관장, 무등현대미술관 정송규 관장의 일상과 두 작가가 작품으로 후배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화순 도곡에서 ‘석촌 수석관’을 운영하고 있는 오기배 관장, 한국화가 김진희씨의 예술세계를 포착했다.

고집스럽게 우리 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장인들을 담는 데 주력한 회원도 있다. 김소녀(여·39·원광대한방병원 간호사)씨는 작품에 ‘혼’과 ‘정성’을 불어 넣고 있는 소목장 설이환씨, 청자장 이용희씨, 자연염색장 신순옥씨, 가족공예가 윤춘영씨의 사진을 전시한다. 김씨는 주말이면 강진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장인들을 만났다.

문화재청 헤리티지채널 사진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월식(51·KT)씨는 서양화가 박수만씨의 작품과 함께 선술집에서 스스럼없이 막걸리 잔을 건네는 ‘인간 박수만’의 소소한 일상을 촬영했다. 또 이장우 가족에서 윤화매(輪廻梅)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다음의 ‘차’ ‘음약’ ‘그림’ ‘윤화매’ 등 4락(樂)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또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굽히지 않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는 뽀리 댄서 조하리씨와 전통 무용가 조유미씨도 그의 카메라에 담겼다.

박재완씨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김용석 수석단원과 극단 갯돌의 창작 뮤지컬 ‘추사씨 어디 가세요’ ‘사랑일레라’ 등 작품에 곡을 쓴 국악작곡가 김상유씨를 앵글에 담아 한지에 인화했다. 또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시조창 정자희씨, 민요교사 백미경씨의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호(51)씨는 의사이자 서양화가,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민, 조상기, 김용욱씨의 해외 의료봉사 모습을 담았고, 어린이 숲 해설가로 일하고 있는 김미정(여·52)씨는 타악그룹 얼쑤 대표 김양균씨와 서양화가 한화원씨의 삶과 예술혼을 그려냈다. 한진수(55·개인택시 기사)씨는 오페라 작가 이승희씨와 자연염색장 국영자씨 등을 찍었다.

문의 062-670-794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성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가득

오늘, 출산장려 보육환경 토론회·여성발전 유공자 시상 등

제18회 여성주간(7월1일~7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영희)는 2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출산장려와 보육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경진 전남대학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김경란(광주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신순철(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본부장), 양성갑(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 저출산담당)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 전에는 문경주 전남과대학교수가 ‘축제는 나의 삶’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광주여성발전회는 2일 오후 5시~7시까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야외광장 일

대에서 제18회 여성주간 행사를 연다.

‘통념을 거부하고 폭력에 맞서는 살맛나는 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실태를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OX퀴즈가 진행된다.

광주 서구는 2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회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는다. 식전행사로 바르게살기 서구 여성협의회 회원들의 난타공연, 서구 여성합창단의 합창공연이 펼쳐진다.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도 이뤄지며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이 ‘여성의 참여! 서구를 바꾼다’를 주제로 특별강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이 된 풍경’ 조강현 초대전 15일까지 갤러리 아크



갤러리 아크(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옆)가 두 번째 힘찬 화제를 시작한다.

갤러리 아크는 오는 15일까지 감성적 붓질로 주목받고 있는 서양화가 조강현씨를 초대해 ‘그림이 된 풍경’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화선지 위에 먹의 번짐으로 그려낸 한국화 같은 느낌의 유화 작업을 하고 있는 조씨의 풍경화 23점이 전시된다.

작품 속에 이미지는 하늘과 바다, 지평선과 그 너머 아득한 풍경들로 작가 내면의 심상을 더해 매력적인 세계를 만들어 낸다. 기억과 상상 속 잔

상, 그리고 우연적인 풍경들이 낯선 듯 새로운 느낌들로 관람객들을 유혹한다.

작가는 “작품 속 하늘, 지평선, 대지, 바다는 불변성을 지닌 자연 요소를”이라며 “영원 불변한 자연을 모티브로 과거에 존재했던 내면의 자아와 기억, 욕망, 희망의 접점을 찾아가는 데 주목했다”고 말했다.

호남대와 파리8대학 조형학과를 졸업한 박씨는 프랑스와 일본 등을 오가며 13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671-12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우문현답’ 포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문화현장을 중심으로 모색하는 ‘우문현답’ 포럼을 시작한다.

3일 오후 3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리는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지역문화에서 출발하는 문화도시’.

이무용 교수(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가 ‘새정부 지역문화정책 현황과 전망 -지역문화융성 제안 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며 ‘문화도시를 위한 지역의 문화가치자원 발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한다.

토론회 좌장은 지형원(문화통 대표)씨가 맡았으며 민인철(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씨가 ‘광주지역 문화인물콘텐츠 활용을 통한 문화자원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는 김양균(얼쑤 대표), 김정희(시인·용아문화회 회장), 김혜선(아시아문화개발원 책임연구원), 진시영(미디어 아티스트)씨 등이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돌잔치)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요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통골레
Yon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